



서울대 경영대학 합격!

강남대성학 야간 L1반 윤소윤

저는 반수를 해서 강남대성학원 6야(6월 야간서울대/의대반)의 L1K반에서 수업을 들었고 올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하게 된 윤소윤이라고 합니다.

< 합격 소감 >

일단 원하는 학과에 합격을 하게 되어서 엄마 아빠랑 무척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나고요. 정시 원서 접수접수를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던 저희 권재혁 담임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반수 결심 이유 >

저는 재작년 수능, 19학년도 수능에서 특히 국어 성적이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서 큰 아쉬움이 남았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반수를 안 하면 1년 뒤에 후회를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서 한 학기 동안 연세대를 다니다가 2학기 휴학을 결정하고 강대 6야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 재수를 결심하게 된 이유 >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인문계열 학생이어서 의대를 꿈꾸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재수를 하고 전과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6월 야간서울대/의대반을 선택하게 된 이유 >

일단 가장 큰 이유로는 학교 선배들의 추천이 있었고요. 저랑 같이 반수를 한 친구들도 많이 강대를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특히 제가 강대랑 타 학원을 비교해봤을 때 강대6야라는 시스템이 수능 공부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에 맞춰져 있다고 느껴서 6야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 대성학원의 첫 인상, 분위기 >

일단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처음으로 OT를 진행하셨는데 OT에서 연세대학교 아카라카와 고대 입실렌티를 들려주면서 이 노래들을 이제 잊으라고 하시던 선생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고요. 첫 인상은 되게 강렬하다는 인상이 있었고, 분위기는 강대 6야가 반수반이다 보니까 다 같이 한 학기 출발선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반이라 그런지 유난히 학습 분위기가 정말 좋고 그래서 정말 수능 공부만을 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대성학원의 장점 >

저는 강대6야를 다녔으니까 제가 경험해본 6야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6야를 선택하는 첫번째 이유가 아무래도 수능 공부를 하는데 적합한 시간과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6야 같은 경우는 오전 아침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저희에게 자습을 주고 오후수업부터 수업을 듣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수능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진행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6야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수능 시험을 보는 시간에 맞춰서 그대로 공부를 지속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 대성학원의 관리시스템 >

저는 개인적으로 대성학원에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학습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조교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쉬는 시간에도 최대한 소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저희는 총 6타임의 자습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 의무적으로 4타임 이상의 자습을 하도록 지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흐트러지거나 집중력이 산만해지거나 저희가 공부를 하기 싫을 때조차 학원에서의 지도 때문에 4타임 이상을 반강제적으로 자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전 오히려 제 집중력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좋은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대성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달라진 점 >

제일 많이 달라지는 점은 제가 현역 때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명확한 갈피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유명하다는 현강, 유명하다는 사설 모의고사를 다 풀곤 했어요. 그런데 강대6야에 들어오면서 반수를 하면서는 제 두 번째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 공부의 방향성을 찾게도 되었고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현강을 전혀 듣지 않았고요. 강대의 콘텐츠만으로도 저는 공부할게 너무 넘쳐나서 실제로 대치동 현강을 한 개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반수생활 중 방해요인과 극복방법 >

제 재수생활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었던 첫 번째 요인은 저는 SNS였습니다. 저는 반수를 하다 보니까 이미 한 학기 동안 대학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반수를 실패하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던 생각 때문에 쉽게 안일해 지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수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 학원에 들어간 날 인스타그램 같은 SNS 어플을 모두 지웠고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두 번째로 제가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사람이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자습이 너무 안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억지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임선생님께 제가 지금 공부에 너무 집중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담임선생님이 그러면 주변에 나가서 편하게 쉬고 와도 된다고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외출증을 끊고 그 날은 1~2시간 정도 자습을 하지 않고 밖에서 휴식을 하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 시간 관리 노하우 >

저는 수능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는 과목을 카테고리화했는데요. 수능 시험이 국어 수학 영어 사탐 제2외국어 순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6야 때 자습을 할 때도 자습실에 앉자마자 국어 수학 영어 사탐 순으로 공부를 했던 게 실제로 수능을 보는 데에도 실전연습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어 수학 같은 주요 과목 보다는 조금 비중이 낮은 제2외국어나 절대평가인 영어 같은 것을 수업 쉬는 시간 때마다 조금씩 본문을 보거나 아랍어 단어를 보면서 최대한 공부 시간을 뺏기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 자신만의 학습 비법 >

저는 저만의 학습 비법이라면 저는 제가 현역 때와 달라진 점은 현역 때는 제가 1주일이나 2주일 나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플래너를 짜고 공부를 했다면 이번에 강대를 다니면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 보다 하루하루를 최대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주일 계획을 먼저 세우기 보다는 그날 아침에 자습실 자리에 앉아서 그날 하루의 계획을 그 당일에 모두 세우고 그날 그날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게 저만의 학습 비법이라면 비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취약과목 학습법 >

제가 가장 취약했던 과목은 국어였습니다. 국어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쉽게 성적이 오르지 않기도 하고 뭔가 수학처럼 공식을 외우는 것도 없고 사탐처럼 개념을 외울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공부를 한 만큼의

비례해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저의 큰 걱정이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강대에 있었던 콘텐츠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대에서 주신 간쓸개나 강대모의고사 또 다른 모의고사를 몇 번씩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려고 노력했구요. 그래도 성적이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을 때에는 강대에 단과를 신청을 해서 제가 기존에 수업을 듣고 있었던 국어 선생님의 단과를 수강 신청을 해서 그 선생님의 단과를 또 하나를 들으면서 국어를 공부하는 양을 최대한 늘렸던 것 같습니다.

< 시기별 학습법 >

반수를 시작한 초반에는 아무래도 제가 한 학기 동안 수능 공부를 손에 놓고 있다가 새로 시작한 것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득하게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수학의 경우에는 제가 수학에 대한 감을 한 학기 동안 잃어버렸다 보니까 수학 비중을 가장 높게 책정해서 최대한 많은 수학 문제를 풀면서 다시 실전 감각을 되돌리려고 노력을 했구요. 그런 식으려 처음에는 수학 비중을 높게 잡다가 점차적으로 제가 취약한 과목이었던 국어를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수능이 가까워졌을 때 수능 한 달 전쯤부터는 수능 당일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그 다음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따로 사회탐구 노트를 만들어서 단권화 시키려는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능 당일 날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그 단권화 노트 하나만을 가지고 가서 다음 사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노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 대성학원 학습 콘텐츠 중 가장 도움되었던 콘텐츠와 활용법 >

제가 가장 도움이 되었던 콘텐츠는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해시태그2750이라고 해서 50분 안에 수학의 29, 30, 21번 킬러문제를 제외한 27문제를 50분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시험지를 학원에서 제공해주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킬러문제 이외에서도 잦은 계산 실수나 개념에 있어서 잠깐 잠깐씩 착각하는 면들이 많아서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해시태그 2750을 계속 풀면서 그런 사소한 실수들을 계속 줄여나갔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도움이 되었던 콘텐츠는 강대에서 제공했던 오답노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오답노트를 오답노트이자 정리노트로 활용을 해서 수학 문제 중에서도 틀렸던 문제들을 다 같이 정리함과 동시에 국어나 사회탐구에서 헛갈리는 개념들, 그리고 제가 자주 틀리는 선지들을 따로 정리해서 수능 당일날 가져가서 그 오답노트들을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 반수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 >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제가 수능 한 달 남짓 남았을 시기에 유난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에 집중이 안되어서 어떻게든 조급한 마음에 엉덩이를 의자에 붙여놓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집중이 너무 안돼서 이 수능에 대한 압박감도 너무 심한데 그만큼의 효율이 나지 않는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학원을 나와서 친구들이랑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평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 반수 생활 중 가장 즐거웠던 순간 >

그런데 사실 저는 강대에 있으면서 힘들었던 것보다는 즐거웠던 기억이 많은데요. 가장 즐거운 기억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고등학교에서 같이 6야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고 점심시간에 소소하게 수다 떨고 중간 중간 나갈 수 있는 시간에 나가서 그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하다 오고 수업 다 끝나고 밤 10시가 넘어서 근처에서 마카롱이나 맛있는 후식 같은 것을 먹으면서 소소한 일상을 나눴던 게 저한테는 공부를 하는데 꽤 큰 힘이자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반수생활 하면서 자신이 꼭 지켰던 것 >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꼭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것은 꾸준함을 잃지 말자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이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일요일 너무 화창한 날씨의 일요일에는 공부를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과하게 무리하지 않게 휴식을 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매일 한 타임 이상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스스로에게 적용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볼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학원에서 나와서 자습을 했었고요. 그게 한 타임이든 두 타임이든 최소한 한 타임 그것보다 적은 시간이라도 일단 학원에서 나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 반수를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격려 >

재수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꽤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에 가 있는데 뭔가 나만 일년 뒤쳐진다는 기분도 들고, 이래저래 이번에 수능도 2주나 연기가 되면서 심란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2주만큼 연기가 된 것은 2주만큼 자신의 역량을 더 준비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준비기간이 더 늘어났다고 뒤집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슬럼프 같은 게 있으시더라도 다른 분들도 다, 저도 있었고 모든 친구들이 한번쯤 겪게 되는 슬럼프니까 너무 억지로 공부가 안 되는 날은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쉬는 때는 쉬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자세가 이 수능이라는 긴 여정을 달려오는데 크게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두 열심히 노력하셔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 긴 여정에 후회가 없는 과정을 밟으셨기를 바라겠고요. 결과적으로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결과 그리고 후회 없는 나날들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